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4년 2월 16일(주일) 제987호

꿈을 꺾라! 찬양하라!

2014 패션집회 ... 3월 1~2일 광나루역 유니클로 악스홀



패션(Passion)집회가 시작된다.

3월 1일과 2일 광나루역 유니클로 악스홀에서 청소년을 위한 예배축제가 막 오른다.

예배를 사모하는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패션집회가 열리기만 기다렸다. 예배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열정을 마음껏 뽐낼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는 예배를 이야기한다. 예배자가 되는 꿈을 그린다. 그들이 있어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다. 분명 그들 속에서 다음 세대 리더가 세워질 것이다.

‘패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집회다. 2002년 시작된 이래 전국 각지에서 매년 5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몰려들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청소년들은 삼시간에 집회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다. 그 열기를 보면 밝은 미래가 보인다. 하나님 기뻐하실 차세대 리더를 사모하게 된다. 곧 시작된다.

청소년들이여, 하나님의 꿈을 꺾라! 기뻐 뛰며 찬양하라!

문의: 02) 3215-3523

이단 바로알기

» 7면

2014 목회사관학교

» 8-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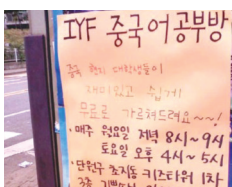
특집_ 대청 아이위

» 10면

서울 근교 기도처

» 12면

한 지붕 세가족
‘비성서적 구원
파’



‘미션얼 패스터’
의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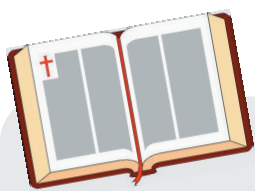


형제자매 결혼
돕는 ‘iWe사역
팀’



하나님과 단둘
이 만나는 여행
어때요?





주일강단



문봉주 목사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려면

행 1:1~5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사는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리더가 조직이나 단체의 장을 맡으면 꿈과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리더가 제시한 비전이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비전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욕심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리더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무리하게 성취하려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칩니다. 때에 따라서는 단체나 조직에 큰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비전을 바탕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맺은 열매가 바로 국내 10개 캠퍼스와 해외 30개 비전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캠퍼스와 해외비전교회 담당목회자, 성도들이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복음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1~2절).

사도행전적 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내용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활동한다

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면 결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이야기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방언이나 예언 등의 치유사역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성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는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하게 여겨야 합니다. 외에 주리고 목이 마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 직장과 가정에서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으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듣고,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체험적인 부활신앙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3절).

체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장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분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많

이 있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친히 40일 동안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진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요 2:22).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체험적인 부활신앙만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해야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주인이었던 돈, 명예, 권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체험적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됩니다.

성령세례와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4~5절).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성령세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

어가기 전에 성령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세례를 받고 떠나야 합니다. 성령세례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배우지 않고 그냥 가면 목회현장이나 선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신 성도들보다 믿는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성령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무엇인가 달라도 다릅니다. 똑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자세가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섬기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정을 보면 별볼일없고 울어야 할 일이 많은데 늘 밝은 표정입니다. 성령세례 받은 사람은 찡그리려고 해도 찡그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쁨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사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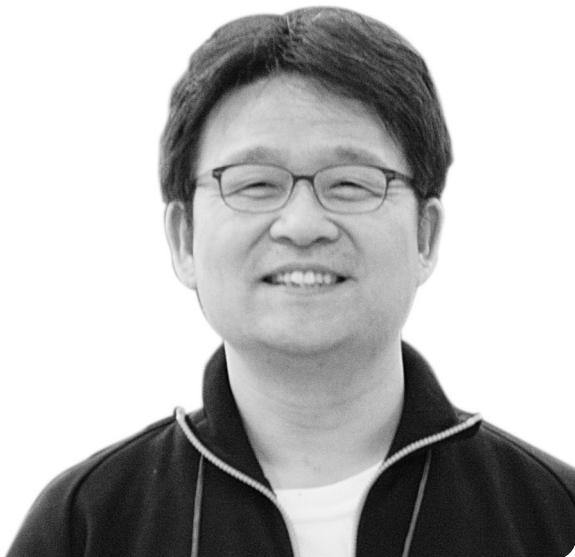
좋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복음의 지식을 충만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을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세례를 받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성도되게 하옵소서.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해외비전교회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새로 세워진 해외비전교회 담당목사들을 만났다. 해외에서 Acts29비전을 쓰기 시작한 감회가 궁금해서다. 노스시카고 윤길중 목사, 밴쿠버 이한규 목사, 단둥 김대진 목사, 청도 최승구 목사,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호치민 박영근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우에다 유성근 목사는 목회일정 관계로 만나지 못했다.
/ 특별취재팀

노스시카고 온누리교회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포근함 ‘윤길중 목사’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동계수련회 때였어요. 3박4일 동안 울면서 회개하고 은혜 받았지요. 누나와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대학원 1학기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청년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용조 목사가 선교사로 부르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헌신해서 2천선교 파송 선교사 1기로 중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아내를 만났고 7살 된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 전에 교육담당 목사의 권유로 유년부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부터 차세대 사역을 주로 했어요. 꿈땅, 차세대전체기획, 차세대본부장, 새벽나라(청소년QT) 편집장으로 사역하다 대전, 아부다비를 섬기고 노스시카고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따뜻한 목회자 되고 싶어요. 사랑하고 사랑 받는 목회자를 꿈꿉니다. 성도님들이 ‘이웃집 아저씨’ 라든지 ‘곰돌이 푸우’ 라고 불러주셨어요. 성격이 급한 약점이 있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올해 10주년이 되는 노스시카고 온누리에서 저는 다섯 번째 목사로 부름 받았습시다. 노스시카고는 네이퍼빌시카고와는

다르게 청년보다는 성인 중심으로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 총인원이 11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성인이 75명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와 청년,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한국교회에 세 들어 살다가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드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루터’ 라는 미국교회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노스시카고 온누리교회는

2004년 6월 27일 창립된 노스시카고 온누리교회. 성인 75명, 차세대, 청소년 40명이 출석하고 있다. 지역교회와의 연합예배, 가정세미나, 북한선교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윤길중 목사는 지난 1월 5일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늘 만나고 싶은 목회자 ‘이한규 목사’

“4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전염병이 돌았대요. 할아버지도 전염병으로 죽을 위기였는데, 당시 할아버지를 돌보던 보모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분이 며칠을 꿋어앉아 할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동네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할아버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 후 증조모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신학교 입학 후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종말론, 교회론)라는 학생

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수업이 있는데, 저는 그 수업을 통해서 화신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컬러TV를 사오셨는데 흑백방송만 보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받은 충격이랑 수업시간에 받은 충격이 비슷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세상은 흑백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 컬러로 바뀌었지요.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훈련 받아야겠다는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한국에 와서 두란노 해외 저작권 관련 일을 했습니다. 영문으로 나오는 책들 중에 한국에 소개되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 선별하고 계약하는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베스트셀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함께 살기 위해 밴쿠버에 왔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가족처럼 함께 나누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벤트와 행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사회에서 느끼는 상처와 외로움을 함께 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저의 가족은 아내와 두 딸, 아들 하나가 있어요. 첫째 딸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고, 둘째 딸은 올해 한국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막내아들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이민자로 살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제 삶도 외로웠기 때문에 교인들과 삶을 나누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이 저의 달란트라고 믿습니다.

따뜻한 목사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는 목회자, 어려움과 기쁨을 아는 목회자, 늘 만나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 2003년 12월 21일 창립했다. 이한규 목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단동 온누리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 ‘김대진 목사’

“대학을 갔는데 꿈이 없어졌어요 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고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변하게 되었어요. 원래 건축을 했지만 그 일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치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서른다섯 살에 신학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성격, 요소를 잘 조합시켜 건물이 자기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축인데 목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발견하고 색깔을 입혀주고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들이 빛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나까요. 그들을 바라보고 격려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내는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마음에 들어서 쉬는 날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아내가 사는 동네를 찾아갔죠. 갈 때마다 거절당했어요. 추석 즈음에 마음을 모두 보여줬으니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줬는데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해 4월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1년 후에 신학을 시작했고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생겨서 지금은 10살, 9살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통일이 멀지 않았고 이때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오게 됐습니다. 단동 온누리교회는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문을 열면 압록강이 있고 신의주가 있습니다. 국경지대인 만큼 지혜와 기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북음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단동 온누리교회는 중국 북음화를 위한 교회입니다. 중국인들을 잘 양육시키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뿌리가 되지요. 이를 위해 체계화된 신학이 필요하고 교육콘텐츠를 개



발해야 할 것입니다.

단동 온누리교회는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대다수가 애절하고 기고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애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위로하고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단동 온누리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 무클합니다.”

단동 온누리교회는

1999년 4월 4일 문을 연 단동 온누리교회. 교회 문을 열면 압록강이 있고 신의주가 있다. 국경지대인 만큼 지혜와 기도가 필요한 지역. 김대진 목사는 1월 17일 취임했다.

청도 온누리교회

‘오직 사랑’ 외치는 최승구 목사

“저는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미국 유학시절이었어요. 무척 외롭고 비전도 안 보여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이 뜨이면서 저의 생각에 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인생이 되었죠.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가 많았어요. 서른 살에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만류했어요. 결국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햇빛트리니티 신학생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셨어요. 당시 양재 온누리교회가 세워졌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교회의 부



르심을 받고 트리니티 1기생으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부르심이 그때 이뤄진 것이었어요.

저는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에 내일 일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세상물정을 알다 보니 파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할 때도 있어요.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저를 좋아해주셔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결정적 사건은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본래 결혼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체험 후에 결혼에 대해 순종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는 장로님의 아드님으로부터 불교집안에서 혼자 신앙 생활하는 독실한 여자를 소개받게 됐어요.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안 믿는 가정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믿음이 좋은 여자 같아서 부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에 지금까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청도 온누리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사랑이 많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저 역시 사랑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가 만든 경험과 지식을 생각하면 소망이 설 자리가 없고 탐욕이 깃드는 것 같습니다.

청도 지역은 기독교 교인 수가 10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청도 온누리교회도 30%가량 줄어서 성도 150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청도 온누리교회는

2008년 3월 3일 창립예배를 드린 청도 온누리교회. 15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최승구 목사는 지난 1월 15일 취임했다.

야치요 온누리교회

야치요에서 온 누리로,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었고, 아버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정교회를 인도하실 정도로 아버지 신앙이 좋으십니다. 저는 대학교 입시에 떨어진 후 크게 낙심했어요. 그때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에 잠시 오게 됐죠. 어느 찬양집회를 갔었는데 설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우리들(일본인)을 보면서 ‘(일본인) 청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일본의)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학교는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일본 신대원을 다니려고 했는데 조건이 맞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침



오사카에서 러브소나타가 열렸는데 당시 서빙고 일본어예배 협력목사로 계셨던 다카미자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의 소개로 길이 열려서 신학공부를 하러 2007년 9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교육전도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전도사의 사례비 개념도 없고요. 하지만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와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들어가자 길이 열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니 제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에서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제게 가장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온누리 스피릿, 선교마인드와 역동성을 야치요 온누리교회에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치요에서 전 세계로(온누리로) 뻗어 나가는 꿈’을 품었습니다. 차세대 리더십을 양육하고 싶어요. 연령적인 차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차세대가 되어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도록 돕는 것이 저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야치요 온누리교회는 따뜻하고 성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



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키지 않아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어요. 야치요는 작은 교회이지만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일본어예배부에서 사역하면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 20개월 된 딸이 있고요. 한국말과 일본어로 웅알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는 늘 웃는 모습입니다. 정작 화가 나도 얼굴은 웃는 모습이라 사람들이 친근함을 갖고 다가와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야치요 온누리교회는

일본 비전교회로는 가장 처음 세워진 1996년 10월 30일 창립된 야치요 온누리교회. 야치요 온누리의 전신은 오와타신텐 그리스도교회로, 온누리교회 첫 장로 선교사인 조성록 선교사가 창립한 교회다.

호치민 온누리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사 꿈꾸는 박영근 목사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온누리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고신 측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가 1983~4년도라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죠. 당시 하용조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고신 측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때 온누리교회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누리교회에 가게 하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1986년도에 직장을 따라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1987년 9월 온누리교회에 와서 1988년 1월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새가족 9주 과정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신학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가정이 어려워져 그만두게 되었어요. 직장생활을 선택하면서 ‘다시는 목사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사는 하지만 선교사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1997년도 여름, 온누리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섬기던 제가 청년들과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제가 설교했는데 말씀

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영근,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네 설교를 듣고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보이느냐?’ 하셨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일 년 내내 저도 모르게 지상명령에 관한 설교만 했어요. 설교 듣는 청년들이 반응을 안보여 ‘당신들이 안가면 내가 간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아내와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고 1999년 6월 25일에 스리랑카로 떠났습니다. 13년을 사역했고 재작년에 부친 온누리교회에서 2년 동안 목회하다 올해 호치민 온누리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되었어요.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큐티와 일대일도 많이 하고 좋아하지요. 온누리교회의 생명이 큐티와 일대일 아닙니까.

가족은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카추사라서 용산 미군



부대에 가 있는데 올해 7월에 제대합니다. 딸은 대학교 1학년입니다. 올해 9월이면 둘이 같은 학부, 같은 학년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호치민 온누리에서 취임했을 때 성도님들께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고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재미있는 교회, 재미있는 목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공식적으로는 2011년 8월에 시작되어 올해 8월이면 3주년을 맞는다. 2010년부터 온누리교회 세 명의 안수집사와 타교회 안수집사 한 명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목회하던 목회자와 함께 교회 개척을 준비했다. 초기 30~40명이었던 교인은 지금은 성인 200명, 차세대 150명이다.

온누리교회 사역 소개 1

은혜와 감동, 영적 유산 나누는 ‘일대일’

‘아이를 낳는 것보다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는 코치, 성도는 선수’

이 말들은 온누리교회 양육체계를 잘 설명해 준다. 양육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는 말이다.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일대일은 큐티와 더불어 온누리교회 대표 양육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핵심가치다. 평신도가 주인공이다. 지금도 온누리 성도들은 배우든지 가르

치기 위해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다.

일대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서로 변화되는 통로다. 일대일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양육자가 성경과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 영적 유산을 나누는 부모가 되는 것이 목표다. 온누리교회를 영

적으로 하나로 묶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감히 온누리교회 핵심가치라고 불릴 만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영성, 양육체계를 타교회에 전수하고 있고, 해외 선교사들의 유용한 선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일대일, 나도 하고 싶어요!

신청

1) 일반

일대일 동반자 과정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교인은 교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iSchool(www.ionnuri.org)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합니다.
iSchool 회원가입 -> My page -> 일대일과정(일대일내역) ->신청하기 버튼클릭(설문작성)

동반자	iSchool My page의 일대일 내역에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양육자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연결된 양육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양육자	iSchool My page의 일대일 내역에서 설문지를 작성 동반자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새가족	모든 새가족은 새가족 1주차에 일대일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타 교인	타 교인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타 교인 양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대외사역에 한해 인정됩니다.

3) 일대일 내역 확인

iSchool에서 본인의 일대일 내역과 함께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chool 회원가입 -> My page -> 일대일과정(일대일 내역)

동반자

동반자 과정 대상자입니다 -> 일대일 양육을 받지 않았을 때
동반자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 일대일 양육을 받고 있을 때
양육자반 과정 대상자입니다 -> 동반자 과정 후 양육자반 수감이 가능할 때

양육자

양육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양육활동이 없을 때
동반자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 양육을 하고 있을 때

일대일 사역현황(2013년)

일대일 전체	일대일 대외사역
총 동반자수 : 2731명 총 양육자수 : 1153명	국내외 31개 교회 섬김 동반자 및 양육자과정 267명 수료

신년기획 - 이단 바로알기 4

구원파



구원파는 비성서적인 이단이다. 말씀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

원래 구원파는 한 단체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세 개의 단체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다. 구원파 설립자 권신찬과 그의 사위 유병언이 중심이 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여기서 독립한 이요한의 대한예수교침례회 서울중앙교회,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www.gbs.or.kr)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권신찬과 유병언의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과 유병언의 기독교복음침례회는 구원에 대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회개하는 자는 죄가 있다는 증거이고,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십계명과 기도도 거부한다. 예수 시대에는 기도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기도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 종말 임박을 강조하며 긴장을 조성한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환경단체 한국녹색회를 통해 포교하고 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포교한다. 집회 참석 인원들을 기준으로 보면 교세는 약 1만2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요한의 서울중앙교회

이요한의 서울중앙교회(seoul.jbch.org)는

거짓 교리 분별 위해 말씀 위에 서라!

권신찬의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분립한 단체다. 권신찬 등이 포교를 목적으로 사업에 치중하자, 이요한 등은 교회와 사업을 분리할 것을 주장하며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이탈해 1983년 독자적인 교회를 설립했다.

이들은 구원파 관련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같이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한다. 생명의말씀선교회(www.jbch.org)를 통해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생의말씀사(www.elpress.jbch.org)라는 출판사를 통해서도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책자 발간뿐만 아니라 신앙 상담과 성경 강연회 등을 개최해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교세는 국내외 200여 소속 교회 약 4만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

구원파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www.goodnews.or.kr)다. 1988년 박옥수의 대표적인 저서인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의 발간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국내외에 300여 개의 소속 교회를 두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침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역 이름과 함께 ‘기쁜소식○○교회’라는 형식의 통일된 교회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여름과 겨울에 수양회와 어린이

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기쁜소식사라는 출판사와 GNN방송(ignntv.com)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 동아리를 두고 있는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www.iyf.or.kr)라는 핵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IYF는 해외 봉사활동, 세계문화체험박람회, 영어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 청년 대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국내 9개 도시에 링크스쿨이라는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안 학교를 운영하며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구원파는 비성서적 이단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다.

하지만 구원파는 예수가 직접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자신들의 교리를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비성서적인 이단이다. 이단의 거짓 교리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이단문제 전문가 탁지일 교수가 저술한 <목회와 신학 총서>에 실린 내용을 발췌 및 요약했습니다.**



목회사관학교

선교사가 곧 목회자, 목회자가 곧 선교사

선교는 목회자의 열(정체성) ... 무엇이든 '순종'

이번 목회사관학교는 특별했다. 새로운 선교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국내 캠퍼스, 해외 비전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모였다. 선교사들도 함께 했다. 목회자와 선교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13일 경기도 여주 마임 비전빌리지에서 '미셔널 파스터(Missional Pastor)'를 주제로 제12기 목회사관학교(이하 목사관)가 개강했다.

이재훈 목사가 'Missional Pastor'를 주제로 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이재환 선교사가 'Missional Church'를, 이훈 목사가 '공의, 긍휼, 겸손'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미셔널 파스터'는 선교사가 곧 목회자이고, 목회자가 곧 선교사라는 인식이다. 해외에서는 타문화권 선교로, 국내에서는 훌륭한 목회사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재훈 목사는 '미셔널(Missional)'이라는 단어를 '미션열(미션+열)'이라고 설명했다. 선교가 목회자의 '열(정체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미셔널 파스터'라는 것이다.

/ 특별취재팀



1



2



3



4



5

1. 유현목목사(뉴질랜드)가 장로들과 포옹하고 있다.
2. 둘째날 저녁에는 운영위원회 장로 및 아버지학교 김성목 장로가 방문해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3. '세상을 변화시키는 Missional Church'라는 주제로 손창남선교사가 강의를 전하고 있다.
- 4,5. 선교사와 교역자들이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있다.

| 메시지 |

“선교 열이 담긴 목회자”

미션넬(Missional)은 영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만 번역하기에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역사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션넬을 한국말로 ‘미션열(미션+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션넬 패스터(Missional Pastor)는 선교의 열과 영혼이 담긴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와 목회가 하나 되었던 하용조 목사님의 열, 선교적 정신에서 태동되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목회사관학교를 통해서 선교와 목회가 별개라는 인식이 아니라 미션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상황을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목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해외에서는 ‘타문화권 선교’로, 홈랜드에 있을 때는

‘지역사회 선교’로, 성도들한테는 훌륭한 ‘목회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 공동체, 심방, 돌봄이 모든 것이 미션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미션넬의 의미 세 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Incarnational(성육신적)’입니다. 낮아지고, 찾아가고, 내려놓음으로써 그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오는 사랑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성도이기 전에 그들과 같아져야 되는 성육신적인 목회자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Passionate(열정적)입니다.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열정,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목회자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지치지 못하게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사명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하면 불태울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Reflective(묵상,반추적)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선교사든 목회자든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 헌신의 순수한 마음이 퇴색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 미션열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션넬 패스터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을 벗는다면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미션넬 패스터입니다.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미션을 단어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인 ‘열’이 되어 Incarnational(성육신적인), Passionate(열정)을 가진, Reflective(반추, 되새김)함으로 인해서 미션넬(미션+열)을 회복한 미션넬 패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끝날까지 복음 전하라”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사경회라는 성경공부가 온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사역회가 부흥사경회로 바뀌면서 심령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교회 형태가 변하면서 평신도 제자운동, 가정교회, 셀 그룹, 강해설교가 열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교회도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모두 이머징 교회운동(Emerging Church Movement)입니다. 이머징 교회운동은 새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머징 교회운동처럼 미션넬 처치가 굉장한 유행을 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몇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신학화, 제도화되어 화석처럼 만들어버릴까 근심이 됐고, 처음 의도와 다르게 지나치게 보편화되어버리고 광의적으로 의

미가 확대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미션넬 처치(Missional Church)는 어떤 모습일까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 교회 예산의 반을 선교에 투자하는 교회? 선교가 리드하는 교회? 무엇일까요. 레슬리 뉴비긴은 미션넬 처치를 교회 자체가 선교사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는 선교를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표현됩니다. 사도바울은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롬 11:25)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교회 존재의 가치는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인 선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어떻게 열두 제자도 깨달을 수 없었던 선교에 눈을 떴을까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

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갈 1:12)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선교이고, 비밀이고, 하늘에서 준 비전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간 것은 의무나 책임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이며 비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선교는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11억 7천 명의 무슬림, 8억 명의 힌두, 4억명의 불교, 셀 수 없는 미전도 종족, 1천 4백만이라는 유대인들...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날에 하나



이재환 선교사

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선교를 통해서만 오는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고 싶어 하십니다. 선교사로 떠나십시오. 못 가시면 보내십시오. 그것도 안되면 무릎선교사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오셔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온누리교회”

해외 선교와 사회 선교를 두 날개로 표현한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보다 신실해지기 위한 반응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누군가를 보내는 것(Sending body)보다 이미 세상 속에 보냄 받은(Sent body)것입니다. 교회 뿐 아니라 교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보냄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한다면 모든 곳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선교는 낯설고 익숙치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사회선교도 타문화권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의 사회 속에 들어가셔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사회 선교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입니다. 주님은 크리스천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공의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봉사, 사역보다 앞서 우리의 됄됨이의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됄됨이를 보고, 배우고 싶고 도전받게 되는 것이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성도들이 이웃관계 속에서 됄됨이가 다를 때 그때 진정한 사회선교가 이뤄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래서부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뀐 위로부터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운동이 사회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공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

리는 청지기 일 뿐입니다.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로 ‘겸손’입니다. 공의롭게 행동하고 공화를 베푸는 것에 헌신하고 있다면 어떤 우리가 될까요.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회에 가해자나 기득권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한사람 한사람 만나보면 하나님의 공화(공화)가 필요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공화(공화)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또한 겸손은 우리의 속도와도 관련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선한 마음, 선한



이 훈 목사

동기를 불어넣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구하는 선교가 아니라 감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회선교가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 크리스천 결혼 돕는 'iWe' |

“당신의 반쪽을 찾아드립니다”

iWe 5기 참가자 모집

“아직 하나님이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고요?”
 “준비 되지 않아 보지 못했거나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좋은연애연구소’ 김지윤 소장의 조언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많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8만 가구였던 미혼 1인 가구가 2010년대에는 85만 가구로 늘었다고 한다.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다.

크리스천 미혼남녀들은 어떻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 출석하는 청년 8천 명 중 90% 이상이 가정

을 꾸리지 않았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학청년부는 크리스천 미혼남녀들의 결혼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iWe' 사역을 도입했다. 'iWe' 는 둘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다. 커플 성공률이 50%에 육박한다. 참가자들의 호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올해도 iWe사역팀에서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누리교회에 등록된 30~40세 형제, 28~36세 자매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각 10명.

iWe 5기

4월 5일부터 4주간 진행 (1박 2일 프로그램 포함)

문의: iweonnuri4u@gmail.com, 010-5135-7432 이미정 팀장

/ 박익새 기자 leaf@onnuri.org



3월 22일 결혼예정
27기 권지훈 형제, 윤홍미 자매

“iWe 아니었다면 놓쳤을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iWe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훈씨가 조용한 사람이라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그런데 데이트 하면서 대화가 잘 통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해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어요.”

저는 아는 분께 추천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였지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경건하고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소개팅과는 달리 더 깊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각자처럼 보였던 첫인상과는 다르게 얘기할수록 다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동

경이 있었는데 홍미씨가 아프리카 선교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해 주는데 예뻐 보였어요. 앞으로 가족계획에 대한 것도 서로 잘 통했어요. 보면 볼수록 착하고 좋은 자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님들 중에는 수줍음이 많아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멘토님들이 뒤에서 기도해주시고 챙겨주시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iWe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훈씨를 못 만났을 거예요. 내 짝이 iWe에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지원해보세요. 짝이 안 되더라도 눈이 달라지고 나에 대해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 |

설 연휴에 인도네시아 람퐁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팀은 서빙고 성인공동체, 청년 W공동체 청년들로 구성됐다. 아웃리치 팀은 착주교정 및 수기요법사역, 침술사역, 어린이사역을했다. 서로 전혀 몰랐던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

자카르타에서 30분을 이동해 마르디알루요 병원을 방문했다. 원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전날 동네 산파 아주머니께서 극심한 통증으로 호소해 방문하게 되었다. “푸한 예수그리스도(예수그리스도 찬양)”를 부르며 고통을 참은 아주머니는 치료 후 곧장 회복되었다. 병원장님께서 물방울이 수십 년 동안 떨어지면 바위가 깨지듯이, 현지인을 지속적으로 섬기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섬김의 일환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 버스를 제공하고 병원에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셨다.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돈은 무릎에서 나온다”는 확고한 믿음이 도전을 주



었다. 청소년 양육센터에서 4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도 만났다. 청소년들이 한국어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서 선교사님의 헌신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어린이사역과 수

기요법, 침술사역도 했다.

복음이 닿지 않은 람퐁족을 품다

기도로 품어왔던 람퐁족 사역이 시작됐다. 이 곳은 100% 무슬림지역이다. 주민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조금은 경계하고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웃으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몽클해졌다. 아직도 우리가 붙여 그려준 그림을 자랑하며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푸나스자야 지역 성도들이 람퐁족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진보라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종족 간 교류가 없어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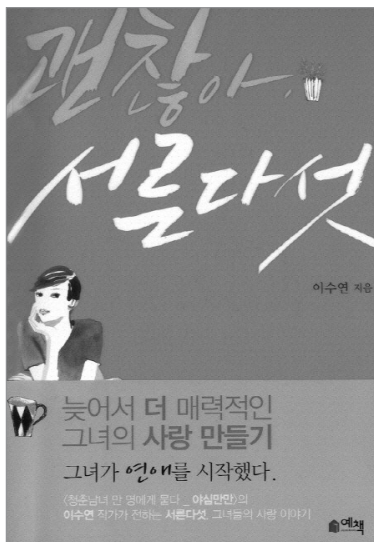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무슬림이 대부분인 인도네시아에 현지인이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

/ 김남학·정수진 자매(W공동체)

수십 년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깨지듯이



책 속의 은혜



백마 탄 왕자는 없다

〈괜찮아, 서른다섯〉 이수연 지음
예책 | 280쪽 | 13,000원

여자 서른다섯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제2의 사춘기로 불릴 만큼 고민이 많다. 또 싱글로서 가장 즐겁고 신나는 때를 보내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 책

은 사랑과 결혼에 있어 고민이 많은 삼십대 독자들에게 똑똑하게 사랑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쁜 남자 구분하기, 소개팅 전략, 밀당의 기술, 남자 길들이는 법 등을 알려준다. 연애를 가로막는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라고 조

언한다. 저자는 배우자 기도노트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도노트로 포장된 배우자 쇼핑 리스트를 버리라고 말한다. 믿음까지 좋은 백마 탄 왕자는 세상에 없다. 욕심을 버리면 ‘좋은 남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저자는 충고한다.

또 년크리스천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년크리스천과의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결혼 후 ‘우리 함께 교회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웃으며 따라갈지 버럭 화를 낼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남들은 쉽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왜 나만 힘든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봄날이 조금 늦게 찾아오고 있는 것일 뿐이다. 늦어서 더 매력적인 그녀의 사랑만들기 〈괜찮아, 서른다섯〉이다.



선교는 선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직업과 선교〉 손창남 지음
OMF-조이선교회 | 240쪽 | 12,000원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마 28:19-20).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에 나가서 복

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다. 이 책은 ‘직업을 통한 선교’를 이야기한다. 3부로 구성된 본문에서는 직업선교의 필

요성과 유형, 준비 과정을 알려준다.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가르쳐준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풀뿌리 선교’다. 사도행전에서는 선교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율과 바나바의 선교’와 또 다른 하나는 ‘풀뿌리 선교’다. 전자는 사도들이 하는 선교로 지역이 국한되어 있다. 후자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지역에서 하는 선교다.

저자는 ‘풀뿌리 선교’ 모델에서 직업을 통한 선교방법을 발견한다. 이 책은 직업선교의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전문인 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성경은 언제나 감동

〈예스 통독〉 조상연 지음
두란노 | 448쪽 | 22,000원

〈예스 통독〉의 ‘예스’는 ‘예수님 스토리’의 줄임말이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예스(Yes)’ 한다는 의미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으려면 핵심을 먼저 알아야 한다. 〈예스 통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구속사 관점을 제시했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

원의 역사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책은 10년간 오직 성경만 읽고 묵상해 온 말통(말씀통독) 목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낱알이 기술했다. 성경의 중요한 초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안내자가 될 것이다.

하루 1시간, 90일이면 성경1독을 할 수 있다.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통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 정현주 기자

가보고 싶은 전시회

한국의 밀레,
박수근 기념전

3월 16일까지 가나인사아트센터



젊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 화가 박수근. 하지만 박완서의 〈나목〉을 읽어봤거나 작품을 봤다면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다. 박수근에 관해 깊이 알면 가난한 화가의 맑은 마음씨와 독실한 신앙에 감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도 이 다음에 커서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화가의 꿈을 키운 그는 집안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화가의 꿈도 좌절됐다. 하지만 주변사람들의 격려로 독학을 했다. 최악의 빈곤 속에서 그림에 정진하던 그는 대화에서 계속 입선해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잠시 일제의 탄압으로 생활이 또 다시 궁핍해졌다.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공산당의 소환과 문초를 당했다. 그는 전쟁 중에 숨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전쟁 중에 자녀를 잃는 고통도 겪었다.

국내외 미술전에 초대되어 예술적 위치와 평가가 높아졌지만 생활은 그의 작품 속 인물들처럼 변함없이 빈곤했다. 간경화가 악화되어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멀어...”라는 말을 남긴 채 운명했다. 시장 사람들이나 빨래터의 아낙네들, 절구질 하는 여인 등 그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박수근이 사람들에게 가진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작품 속 인물들에는 표정이 없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소박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다.

화가가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한 내용도 인상적이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 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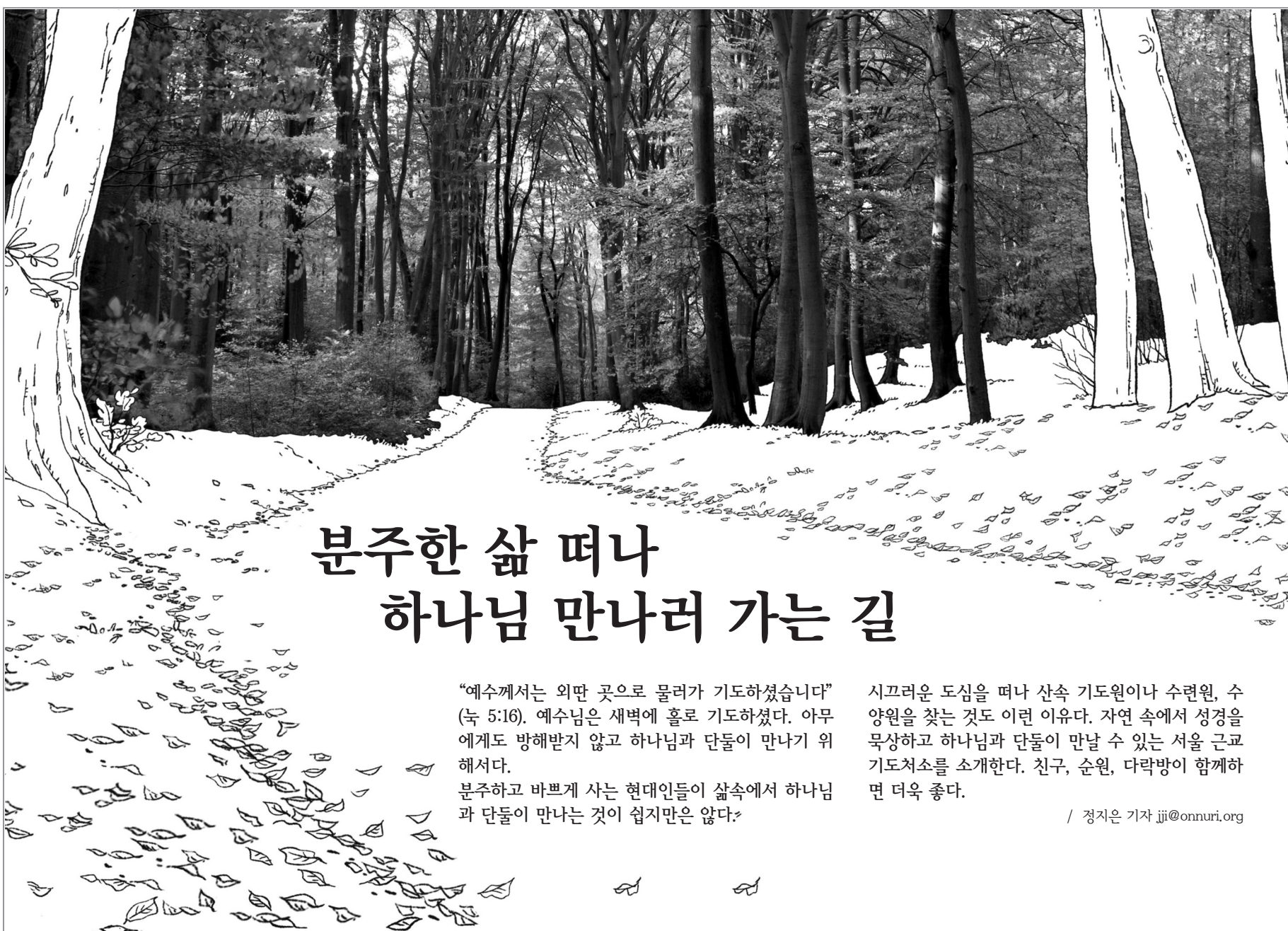
부인인 김복순 여사는 의사의 청혼을 거절하고 가난한 화가의 아내로 살았다.

/ 박익새 기자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전(1.17~3.16)
10:00~19:00 (수요일 오후9시까지 전시연장)
입장료- 일반 1만원, 초등학생 6천원



창신동 집에서 막내딸 인애와 함께



분주한 삶 떠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눅 5:16). 예수님은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다.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삶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시끄러운 도심을 떠나 산속 기도원이나 수련원, 수양원을 찾는 것도 이런 이유다. 자연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서울 근교 기도처소를 소개한다. 친구, 순원, 다락방이 함께하면 더욱 좋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묵상의집

온누리선교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묵상의집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는 차로 20여 분 걸리는 거리다. 수양관인 묵상의 집은 세미나와 단체예배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온누리교회 및 협력기관 단체 행사 때만 사용가능하다. 굵아치는 산길을 올라 묵상의집에 들어서면 자연에 둘러싸인 수도원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거리가 가깝다.(서빙고에서 32km) 신록의 계절이면 초록빛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 길을 볼 수 있다. 야외에도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별장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관리자에게 전화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재단사무국 02-570-7503)

건물이 4개 동 중 대관 가능한 곳은 3동이다. 가장 큰 홀인 묵상의집은 120명이 사용 가능하다. 바닥 난방이 된다. 당일 10만원, 1박2일 20만원. 최대 70명 수용 가능하다. 책상을 놓을 경우 40명 수용 가능하다. 당일 10만 원, 1박2일 20만원. 숙박의집은 가정집과 같이 방 2개, 거실 하나가 있다. 25~30명이 숙박 가능하다. 당일 5만원, 1박2일은 10만원. 취사는 안되지만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하다.



위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김북리 228-4 (지하철 8호선 삼성역, 15-1, 15-2 버스, 안골 버스정류장 하차)
문의: 031-749-4870

■ 필그림하우스

수덕산, 명지산, 연인산의 그윽한 풍경과 용추계곡의 물소리가 들리는 영성의 집 ‘필그림하우스’. 지구촌교회가 운영하고 있다. 가평에 위치한 필그림하우스 주변은 볼거리도 많다. 남이섬과 청평호반, 춘천 소양호, 자라섬, 용추계곡을 들를 수 있다.

150~200명 규모의 세미나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카리타스채플’과 24시간 개방된 침묵기도실 ‘메디타치오채플’이 있다. 영적 스승 필립 안시, 리처드 포스터, 달라스 윌라드, 오대원 선교사를 기념하여 꾸민 객실 VIP실과 소그룹 모임을 위한 세미나실(수덕, 명지, 연인홀), 4인 가족이 함께 묵을 수 있는 가족실도 마련되어 있다.

시설 이용 예약은 전화, 팩스, 이메일,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카리타스채플을 비롯한 예배실은 시간대별 사용료가 다르다. 객실 이용료는 4인 가족실(온돌)의 경우 6만 원(1박)이며, 1인 추가시 7천 원을 더 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기타 장비와 악기도 대여 가능하나 별도 문의해야 한다.



위치: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1862(서틀버스운행)
홈페이지: www.pilgrimhouse.kr
문의: 031-589-7601, 031-589-7610(FAX), pilgrimhouse@jiguchon.org

■ 강남금식기도원

연평균 20만 명이 방문해 개인기도 및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곳. 베데스다 대성전과 요나성전, 최자실 기념관과 개인기도실 100여 개를 구비하고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금식기도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강남금식기도원의 목적은 ‘금식과 기도’에 있다. 금식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금식과 기도를 병행하는 데 의미를 둔다.

새벽기도회와 오전, 오후 예배, 저녁예배, 철야기도회 등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기도원 내 식당에서 밥과 분식을 먹을 수 있고, 서점과 식물원도 있다.

독실 겸 가족실은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 2~3일 전에는 예약해야 원하는 날짜에 이용 가능하다.(신정, 구정, 연휴 등 특별한 때에는 한 달 전 예약) 합숙방, 다인실은 당일 현장 접수로 선착순 입실된다.

숙박이용시 3인실은 33,000원, 4인실은 44,000원, 5인실은 55,000원이다(1박). 이외에 다인실(5~6인실)과 세미나실(10인실)은 1인 1박 11,000원이다.



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 2010번길 58-10 (전호동, 동대문, 분당에서 서틀버스 운행)
서틀 문의: 02-556-1411(교환:114)
홈페이지: http://www.kangnampm.or.kr/
문의: 031-584-1001, 031-584-3357(FAX)

■ 천마산기도원

깔끔한 인테리어나 화려한 장식은 없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만 있을 뿐이다. 동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천마산기도원은 천마산 자락 해발 500여 미터에 위치한다. 구부러진 산길을 올라가다보면 기도원에 다다르는데 기도원 밖에서 크게 소리를 내면 산꼭대기에서 외치는 것처럼 메아리친다. 특히 천마산기도원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매년 개강예배와 종강예배를 드리는 데 이용하는 곳이 기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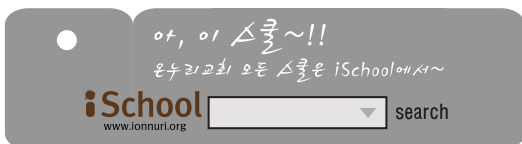
천마산기도원은 총 4개의 관사(예루살렘관, 다비다관, 바울관, 모세관)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 건물인 예루살렘관은 1,2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031-591-7069) 예약금을 20% 입금하면 된다.

1인실은 1박에 1만5천원, 소수인원의 경우 10인실은 1박 3만원, 20인실 5만원, 50인실 10만원, 100인실 20만 원이다.(100명 이상일 경우 전화로 문의) 식대는 4천 원이다.



위치: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58
수용인원: 1,200명까지 가능
비용: 1만5천원 ~ 20만원
식대: 4천원
문의: 031-591-7069



2014년 아이스쿨 강좌안내

<서빙고>

18기 서빙고 전도폭발훈련 (주간/저녁반)

기간: 주간반- 3월4일 ~ 6월17일(매주 화)
오전 10시~오후 3시
저녁반- 3월5일 ~ 6월18일(매주 수)
저녁 7시 반~ 9시 반

장소: 콘서트홀 외 3곳
회비: 7만원
문의: 이태열 010 - 8891 - 9780
주간반: 이규성 010 - 3388 - 0676
저녁반: 김규석 010 - 6384 - 3024

온누리 큐티스쿨 25기 주일 오전반

일정: 3/9~3/23 (매주 주일)
오전 9시~10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회비: 1만원 (당일접수)
문의: 이완구 팀장 010-3199-2769

아름다운 동행 141기, 코치반 6기(부부코칭 프로그램)

기간: 3월15일~5월31일(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문의: 이은호 010-7744-6906
조성환 010-5269-9725

온누리 전도학교 10기 5분 전도 훈련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일정: 3/16~5/25 (매주 주일)
오전 8시50분~10시 10분
장소: 홍보관
회비: 2만원
문의: 문창찬 팀장 010-4572-7373

서빙고 순장학교 (141기)

일정: 3/16~6/1 (매주 주일)
오후 4시30분~7시 30분
장소: 시온홀
회비: 5만원
문의: 이정석 팀장 010-6637-7540
자격: 순장 및 예비순장, 일대일 동반자과정 마친 성도, 공동체 목사의 추천을 받은 성도

목요종보기도학교

일시: 3월 13일~4월 10일 (매주 목요일)
10:30~14:30
장소: 선교관 2층 꿈아이홀
회비: 3만원(하나은행/ 573-910003-30004 중보기도)
문의: 박정숙 팀장 010-3181-6426

치유사역자스쿨 13기

일정: 2014년 3월 26일 ~ 4월 24일
(매주 화, 목 오후 7시~)
장소: 콘서트홀
문의: 이연희 권사 010-7388-9900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01기

기간: 3월 29~4월 19일
(매주 토 오후 3시~ 일 오후 6시,
4주차 토 오전 10시~오후6시)
장소: 광림수도원
문의: 이규영 총무 010-8981-5831

39기 젊은부부학교

일정: 3월29일~4월19일
(매주 토 오후 3시 ~ 10시)
(4월 5일, 4월 12일은 1박 2일)
장소: 서빙고 한동홀, 두란노홀, 파주흥원연수원
문의: 김선율010-7547-5709,
남선덕010-3903-9452
일대일 양육자반-김포공동체

대상: 일대일 동반자과정수료, 온누리등록교인, 세례교인, 순예배참석
일시: 2월 23일~6월 8일 매주 주일 오전 8:20
장소: 선교관 402호
문의: 이미경 집사 010-7551-0575
김숙경간사 02-3215-3220

일대일 양육자반-이촌공동체

대상: 일대일 동반자과정수료, 온누리등록교인, 세례교인, 순예배참석
일시: 3월 2일~6월 15일
(매주 주일 오전 8:20)
장소: 선교관 401호
문의: 강찬옥집사 010-5078-3221
김숙경간사 02-3215-3220

서빙고 창조과학스쿨(기본과정)

기간: 2월24일~02월25일(월, 화)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장소: 경찬홀
회비: 성인 2만원(사전등록) 초중고생 무료
문의: 장요한 간사 02-419-6465

와이즈마더링

기간: 3월 4일 ~ 5월20일 (11주)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일시: 매주 화 오전 10시30분~12시30분
회비: 5만원(교재비 별도)
사전접수 4만5천원(3/27까지)
문의: 02-3215-3521

북한선교학교

기간: 3월 18일~ 5월 13일
장소: 비전홀
일시: 매주 화 오후 7시 30분~10시30분
회비: 5만원
문의: 010-2335-6055

무릎선교기도학교

기간: 3월 14일~ 6월 13일
장소: 드림홀
일시: 매주 금 10시~ 14시
회비: 3만원
문의: 02-3215-3677

<양재>

성경일독학교

대상: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성경 일독을 돕는 학교
일시: 3월 7일~6월 20일 매주 금요일
10시10분~14시
장소: 화평홀
문의: 오정란 사역자 02-570-7457
김주혜 간사 02-570-7277

양재 화요 기도학교

일정: 3월4일 ~ 5월 27일
(매주 화 오전 10시~14시30분)
장소: 화평홀
문의: 문선희 총무 010-6212-3451

성경통독학교 I (이기진 목사)

일정: 3/8 ~ 5/24 매주(토)
(오전10시30분~13시)
장소: 화평홀
내용 (필수과정-1년)
상반기: 구약을 역사순으로 정리 및 통독(헌재 등록증)
하반기: 신약을 역사순으로 정리 및 통독(9월 개강예정)
회비: 3만원 (당일접수 4만원)
문의: 02-570-7433

전도폭발훈련 1~4단계

일정: 3월2일~6월1일 매주(일)
오후1시30분~3시40분
장소: 양재 강의동 202호
문의: 02-570-7433

양재 하트스쿨 사역자학교

일정: 2014년 3월 22일~6월 28일
매주(토) 오후 2시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2-570-7522

온누리전도학교 양재1기

일정: 3월 23일 ~ 5월 25일 (매주 주일)
오전 8시50분 ~ 10시 20분
장소: 강의동 306호
문의: 송영봉 팀장 010-9001-6243
회비: 4만원(교재, 전도실습시 식비 포함)

무릎선교기도학교

기간: 3월 13일~ 5월 29일
장소: 화평홀
일시: 매주 목 오전 10시~14시
회비: 3만원
문의: 02-570-7277

나눔이 있는 QT카페(3기)

기간: 3월 14일~5월2일
장소: 드림홀
일시:매주 금 오전 10시 30분 ~ 13시 30분
회비: 3만원
문의: 02-570-7277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양재 토요일
기간: 3월 15일~4월 26일
장소: 두란노홀
일시: 매주 토 오후 5시~8시
회비: 6만원
문의: 김문갑 팀장 010-7908-0234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양재 목요일
기간: 3월 20일~5월 1일
장소: 드림홀
일시: 매주 목 오전 10시~13시
회비: 6만원
문의: 정경희 팀장: 010-2270-2808

<강동>

강동 일대일양육자반(성중원목사반)

일정: 3월 11일 ~ 6월 24일
매주 화 오후 7:30
장소: 11층 두란노홀
문의처: 02-475-9686

강동 OBC(로마서)

일정: 3월 2일~4월 20일 매 주일 오후 2시
장소: 11층 두란노홀
문의: 02-475-9686

<부천>

온누리 큐티스쿨-이기원 목사반

일정: 3월9일~3월30일
(매주 주일 오후4시~6시)
장소: 드림홀
문의: 이근용(010-5230-1961)

일대일 양육자반 -서현 목사반

일정: 3월8일~6월28일
(매주 토요일 오전6:30~8:30)

장소: 꿈아이홀
문의: 이재춘(010-9031-2909)

온누리큐티스쿨- 최범석 목사반

일정: 3월8일~3월29일 매주 토 오전7시
장소: 예꿈홀
문의: 김두겸(010-3207-8767)

온누리 큐티스쿨- 강은수 목사반

일정: 3월8일~3월29일
(매주 토 오전6:30~8:30)
장소: 드림홀
문의: 조경은(010-3292-0021)

시니어아카데미

일정: 3월20일~6월19일
(매주 목 오전10시~12시)
장소: 경찬홀
문의: 김수미(010-4167-4020)

<대전>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박태영 목사)

일정: 3월9일 ~ 6월 22일
(매주 주일 오후 4시)
장소: 302호
문의: 042-825-3642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임용성 목사)

일정: 3월18일~6월 24일
(매주 화 오후 8시)
장소: 304호
문의: 042-825-3642

QT BASIC 세미나

일정: 3월5일~3월 26일
(매주 수 오후 7시30분)
장소: 6층 본당
문의: 042-825-3642

북한선교학교

일정: 2월16일~3월 30일
(매주 주일 오후 6시)
장소: 4층 비전홀
문의: 042-825-3642

온누리 바이블 클럽

OBC로마서- 대전 중서
일정: 3월9일 ~ 5월4일
(매주 주일 오후 4시)
장소: 304호
문의: 042-825-3642

온누리 바이블 클럽

OBC로마서- 대전 유성
일정: 3월9일 ~5월 4일
(매주 주일 오후 6시30분)
장소: 302호
문의: 042-825-3642

온누리 바이블 클럽

OBC로마서 - 대전 동누리
일정: 3월15일 ~ 5월10일
(매주 토 오후 6시)
장소: 303호
문의: 042-825-3642

온누리 바이블 클럽

OBC갈라디아서 - 대전 여성사역
일정: 3월12일 ~ 4월 23일
(매주 수 오후 1시)
장소: 304호
문의: 042-825-3642